

용어 해설

[개 관]

| | |
|---|--|
| 금융불안지수 (FSI, Financial Stress Index) |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5개 부문(은행, 금융시장, 대외, 실물경제, 비은행)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. 0(안정)~100(불안정)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세 단계(정상, 주의, 위험)로 구분.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, 위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냄 |
| 금융취약성지수 (FVI,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) |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인 자산가격(부동산, 주식, 채권), 신용축적(가계, 기업, 대외), 금융시스템 복원력(은행, 증권, 카드, 보험, 상호연계성)과 관련된 39개 분기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. 0~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함을 나타냄 |

[금융안정 상황]

1. 신용시장

1. 가계신용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처분가능소득 | 개인의 연간소득 중 세제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(사회보장금, 연금)을 보탠 것으로 개인이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|
| 취약차주 |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(소득수준 하위 30%)이거나 저신용(신용점수 664점 이하)인 차주로 정의 |

2. 기업신용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기업신용 | 기업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. 자금순환표 기준 비금융법인(공기업 포함)의 대출금, 정부융자 및 채권(회사채 등)의 합으로 정의 |
| 부채비율 |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|
| 이자보상배율 |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|
| 매출액영업이익률 |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|

3. 신용 레버리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비젤은행감독위원회 (BCBS) | 국제결제은행(BIS) 산하의 위원회.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. 현재 EU를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II. 자산시장

1. 채권시장

| | |
|--------|--|
| 신용스프레드 |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를 0.01%포인트(bp)로 나타내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신용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 |
| 우량물 |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이 AA-이상인 회사채 |

2. 주식시장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주가수익비율 (PER) |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|
| 주가순자산비율 (PBR) |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|

3. 부동산시장

| | |
|----------|--|
| 공실률 |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공실면적의 합을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|
| 부동산PF 대출 |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방식으로, 사업단계에 따라 사업인가 전 토지매입 자금 등을 공급하는 브릿지론과 사업인가 후 준공시점까지 브릿지론 상환 및 공사비 등을 공급하는 본 PF대출로 구분 |

III. 금융기관

1. 은행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고정이하여신비율 |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,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부실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건전성 지표 |
| 순이자마진 (NIM) | 이자자산순수익(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-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)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 |

2. 비은행금융기관

| | |
|-----|--|
| 손해율 | 발생손해액(보험금지급액)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, 수익성 지표로서 경영실적 분석과 보험상품의 효율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|
|-----|--|

3. 상호연계성

| | |
|--|---|
| 상호거래 규모 | 각 금융기관이 여타 금융기관에 운용한 자산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, 자금순환통계의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표와 은행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, 차입금 명세서, 유가증권 보유 명세서 등의 주요 조사표를 바탕으로 19개 개별은행,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부문과 48개 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하여 상호거래 규모를 추정 |
| DebtRank |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의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으로,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(Battiston et al., 2012) |
| 허핀달-허쉬만 지수 (HHI, Herfindahl-Hirschman Index) | 각 업권 단위로 여타 업권과의 거래비중의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,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(집중도 리스크)를 의미 |

IV. 대외부문

1. 외환 및 외화자금

시장

| | |
|--------|--|
| 내외금리차 | 동일 만기 기준으로 국내·외 금리 차이(3월물 SOFR 기준 내외금리차는 “91일물 통안증권 금리 - 3개월물 SOFR 금리”)를 의미하며,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내외금리차가 클수록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본이 유입 (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) |
| 스왑레이트 | 현물환율 대비 스왑포인트(선물환율-현물환율)를 연율(%)로 표시한 것으로 금리평가이론 (Covered interest rate parity)에 따르면 스왑레이트는 두 통화간 금리차와 일치 |
| 차익거래유인 | 차익거래유인이란 금리차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, 차익거래유인이 크다면 한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통화로 교환할 때 환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금리차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· 외환스왑 차익거래유인 = 내외금리차 - 스왑레이트 · 통화스왑 차익거래유인 = 국고채금리 - 통화스왑금리 |

[복원력]

I. 금융기관

1. 은행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LCR) |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|
|-----------------|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외화 LCR | 외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|
| 보통주자본 | 은행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,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|
| 기본자본 | 보통주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본금 등을 포함 |
| 총자본 | 기본자본에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을 포함 |
| BIS 기준 총자본비율 | BIS기준 총자본 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, 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|
| 단순기본자본비율 | 총익스포저(명목가액) 대비 기본자본 비율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 |
| 순안정자금조달비율 (NSFR) | 자산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현금화가 어려워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(안정자금 조달필요금액) 대비 부채 및 자본 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자금 조달금액(안정자금가용금액)의 비율로,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|

2. 비은행금융기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급여력비율 (K-ICS 비율) | 지급여력 금액(자본금, 잉여금 등 가용자본)을 지급여력 기준금액(향후 1년간 99.5%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가능한 요구자본)으로 나눈 비율로서, 2023년부터 신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(K-ICS, Korean-Insurance Capital Standard) 하에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|
| 순자본비율 (NCR) |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, 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|
| 대손충당금적립비율 (Coverage Ratio) |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,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고정, 회수의문,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서,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|
| 조정자기자본비율 | 조정자기자본(기본자본과 보완자본 합산 후 공제항목 차감)을 조정총자산(총자산에서 현금 및 만기 3개월 이내 국공채 등 차감)으로 나눈 비율로서,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|
| 유동성비율 |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 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(보험사의 경우 평균지급보험금)로 나눈 비율로서, 금융회사의 단기성 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|

II. 대외지급능력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대외지급능력 |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무 상환능력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
Ⅲ. 금융시장인프라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금융시장인프라 | 금융시장에서 지급, 청산, 결제,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, 중앙예탁기관, 중앙거래당사자, 증권결제시스템,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 |
| 결제리스크 |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신용·유동성·운영·법률 리스크 등을 포함 |
| 소액결제시스템 | 수표, 계좌이체, 지급카드, 지로 등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|
| 증권결제시스템 | 장부상의 계좌대체(book-entry) 방식으로 증권의 이전을 통해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결제시스템 |
| 외환동시결제 |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 |

[주요 현안 분석]

I.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Growth-at-Risk | 금융취약성을 대내외 충격 시 발생 가능한 GDP 손실로 나타내는 방법론으로, 실물경제 하방리스크 점검 등을 위해 활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II.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소득 대비 부채 비율 (LTI) | 차주의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측면에서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|
| 주기형 대출 | 일정 주기(가령 5년)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,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음 |
| 스트레스 테스트 |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손익, 자본비율 및 현금흐름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리스크 분석 방법 |
| 신용손실 | 채무자의 부도 및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계약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|